



제569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12월 6일)

## 고분벽화로 보는 고구려인의 삶

김진경 | 105호 고구려실 | 18:00~18:30

고구려에서는 생활 풍속, 장식 무늬, 사신도 등 다양한 주제로 벽화를 그린 돌방무덤[石室墳]이 발전하였다. 벽화무덤은 3세기 중엽부터 7세기 중엽까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주로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지안[集安]과 평양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벽화의 주제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립적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서로 혼합되기도 하였다. 벽화에는 고구려인들의 생활 모습과 종교, 사상 등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고구려사는 물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분 구조와 벽화 주제 등을 고려하여 그 제작 시기를 살펴보면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제1기는 3세기 말 ~ 5세기 초에 걸치는 시기로, 여러방무덤[多室墓]에 생활풍속이 즐겨 그려진다. 주로 문헌 자의 살아 있을 때의 생활 가운데 기념할 만한 것과 풍요로운 생활 모습을 그림으로써 내세에도 이와 같은 삶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택된 주제이다. 평안남도 남포시 용강군에 있는 쌍영총 벽화에는 수레, 말 탄 무사, 남녀 입상, 복치는 인물 등으로 이루어진 행렬도와 사신, 공양 행렬, 주인 부부의 실내 생활도 등이 그려져 있다.

전시품은 1913년 쌍영총을 조사할 때에 서벽 널길에서 수습된 벽화 조각으로,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의 모습에서 당시 고구려인의 옷치장과 말갖춤 등을 엿볼 수 있다. 이 인물은 ‘절풍折風’이라는 고구려 특유의 모자에 새 깃 두 개를 꽂아 장식한 ‘조우관鳥羽冠’을 쓰고 있다. 또한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형태의 의복은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사냥하는 수렵 문화 및 상무적 전통의 영향으로 활동성이 강조된 고구려의 특징이다. 벽화 속 인물은 재갈과 고삐를 이용해 달리는 말을 부리며, 말 위에서 몸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안장과 발걸이[鎧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말띠드리개[杏葉]나 말띠꾸미개[雲珠] 등으로 말을 장식하고, 허리에는 화살통을 차고 있다. 고구려 무덤 벽화 사냥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활쏘기에 능했던 고구려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제2기는 5세기 중엽 ~ 6세기 초에 해당하는 시기로, 두방무덤[二室墓]이나 외방무덤[單室墓]에 생활풍속과 사신 혹은 생활풍속과 장식무늬가 공존하는 그림과 장식무늬만을 주제로 한 그림이 많이 그려진다. 장식무늬로는 불교의 정토를 상징하는 연꽃무늬가 즐겨 선택되며, 넝쿨무늬, 동심원무늬, 구름무늬 등이 혼합적

으로 사용되었다.

제3기는 6세기 중엽 ~ 7세기 중엽에 걸치는 시기로, 외방무덤에 사신四神이 즐겨 그려진다. 이 시기 고분벽화의 사신은 널방의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제재로, 단순히 방위신方位神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세계를 지켜주는 우주적 수호신이다.

전시품은 평남 남포시 강서군에 위치한 강서대묘 벽화의 모사도이다. 1912년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강서무덤(강서대묘 · 강서중묘 · 강서소묘)을 조사했으며, 아울러 오바 츠네키치[小場恒吉] 등은 평양지역 무덤의 벽화 모사를 진행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모사도 가운데 12개 무덤 130여 점이 소장되어 있다.

강서대묘는 널길과 널방이 지상에 위치한 외방무덤으로, 잘 다듬어진 대형 화강암으로 벽과 천장고임을 축조하였다. 아무런 배경 장식이 없는 널방 벽면에 사신을 가득 차게 그려 넣었으며, 천장고임에는 연꽃, 비천飛天,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 기린, 봉황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신성한 존재들, 인동당초무늬, 산악 등을 그려 넣어 신선 사상과 불교적 내세를 표현하였다. 천장석 중앙에는 왕의 표지로도 이해되는 황룡을 그려 넣었다. 강서대묘에 그려진 기운이 생동하는 사신도와 유려하고 다채롭게 표현된 천장 그림들은 고구려 무덤 벽화의 절정기 수준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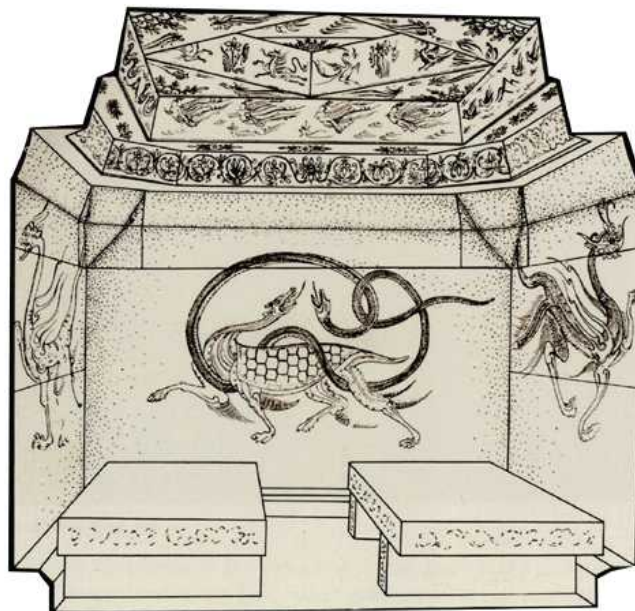


그림1. 강서대묘 널방 견취도

## 600년경에 제작된 금동반가사유상

양희정 | 301호 불교조각실 | 18:00~18:30

한쪽 다리를 내리고 다른 다리를 무릎 위에 올린 반가半跏 자세와 한쪽 손을 뺨에 대고 생각에 잠긴 사유思惟 자세를 결합시킨 것은 간다라 지역의 창안이었다. 간다라에서는 이 자세를 특정한 존상에 한정하지 않고 싯다르타 태자를 비롯해 마왕과 다양한 보살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 중국에서 5, 6세기에 반가사유상이 다수 제작되었을 때도 동시기의 보살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반가사유의 도상을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반가사유상이 조성된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사이의 다른 보살상에 비해 조형성과 크기 면에서 월등할 뿐만 아니라 한 사원의 주존으로 모실 만큼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 바로 이 같은 수준에 이른 상들이 일본에 전해져, 일본에서도 7, 8세기에 집중적으로 반가사유상이 조성된다는 점은 한국 반가사유상의 의미를 더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국보로 지정된 금동반가사유상이 두 점 있다. 국보 83호로 지정된 반가사유상은 1912년에 이왕가 박물관이 일본인 고미술상에게 구입하였다.



그림1. 금동반가사유상, 7세기 전반, 1912년 구입, 덕수3312, 국보 83호

출토 위치는 명확하게 전하지 않지만, 경주 오릉 부근의 절터, 경주 남산 서쪽 선방사 터 부근으로 추정된 의견이 있다. 세 개의 반원을 이어붙인 모양을 한 보살의 보관 형태가 옛 신라 지역의 반가사유상에서만 보이는 것이고, 치장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와 가름한 계란형의 얼굴에서 중국 북제 불상의 양식이 엿보여 7세기 전반 신라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원통형 의자의 바닥 두 곳과 연꽃을 밟고 있는 왼발 앞부분은 별도의 청동을 덧대어 수리하였다. 수리 부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았을 때 수리된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숨씨 좋게 처리되었다. 이 반가사유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를 모르는 기술력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라 할 만하다.



## 감산사 아미타여래상과 미륵보살상

허형욱 | 301호 불교조각실 | 19:00~19:30

경주 외동읍 감산사터에서 발견된 석조아미타여래입상과 미륵보살입상은 광배 뒷면에 제작시기를 포함한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어서 통일신라 8세기 전기 불상 연구의 기준작으로 여겨지는 한 세트의 작품이다(그림1, 2). 글은 중아찬重阿飡 김지성金志誠(또는 金志全)이 719년(성덕왕18)에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아미타상과 미륵상을 만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륵상의 명문은 상의 조성동기, 김지성의 생애, 발원, 어머니의 장례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 아미타상의 명문은 앞부분에 조성동기가 없는 대신 명문을 새긴 관여자들, 아버지의 장례식, 김지성의 사망 사실이 추가되어 약간 차이를 보인다.

감산사 상들은 비슷한 시기의 중국 당唐 및 일본의 덴표[天平]시기 불교조각과 유사하여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공통된 국제양식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미륵상의 한쪽 다리를 굽힌 자연스러운 자세와 화려한 장신구 표현은 인도 굽타시대 및 서역 보살상의 영향을 받은 중국 상들과 비교되고, 아미타상 하체의 Y자형 옷주름은 서역의 여래상에서 기원하여 당대에 중국화된 옷주름의 유형과 친연성이 있다. 다만, 넓적한 얼굴과 다소 경직성이 느껴지는 신체 표현은 같은 시기 중국이나 일본의 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한국적인 변형으로 이해된다.

감산사 상에서 보이는 국제적인 특징의 배경은 성덕왕대에 당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역사적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덕왕은 재위 36년(702~737) 동안 43회에 걸쳐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양국의 총 사신 교환 횟수 중 3분의 1에 해당한다. 김지성 자신도 당에 다녀왔다. 아미타상의 명문에서 언급된, 김지성에게 내려졌다는 상사봉어尙舍奉御라는 관직명은 그가 705년 당에 사신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받았던 것이다. 김지성의 이와 같은 대외적인 활동은 그가 발원하여 만든 감산사 상의 국제적인 양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석조아미타여래입상, 그림 2. 석조미륵보살입상, 719년, 경북 경주 외동읍 신719년, 경북 경주 외동읍 신계리 감산사지 출토, 상 높계리 감산사지 출토, 상 높이 174cm, 국보 제81호 이 183cm, 국보 제82호

## 신안해저선 출토 도제인물상에 칠해진 안료의 종류는 무엇일까

노지현 | 309호 신안해저문화재실 | 19:00~19:30

신안해저선에서는 동·식물이나 인물, 특정 기물 등 형상이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상형도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 상형도기는 앞면과 뒷면을 주물 틀로 뜬 후 내부를 비우고 앞뒤를 붙여 만들었으며 옆에서 보면 붙인 흔적이 보인다. 일부 상형도기는 내부 빈 공간에 흙구슬을 집어넣었는데, 흔들면 소리가 난다(그림 1). 구슬의 숫자는 3~4개가 대부분인데, 1점에서만 8개의 구슬이 확인되었다. 이는 제작할 때 실수로 구슬을 두 번 넣었거나 구슬이 상형도기 내에서 파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형도기의 일부는 채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색 안료의 대부분이 떨어져나가 칠했던 흔적만 부분적으로 확인될 뿐이다(그림 2). 상형도기에서 확인된 안료의 색상은 크게 백색, 흑색, 적색, 녹색 계통으로 주로 얼굴이나 옷 등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다. 채색 안료의 경우 비파괴 분석법인 엑스선형광분석(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XRF)을 통해 어떤 종류의 안료를 사용하였는지 추정할 수 있는데, 백색 안료는 연백, 흑색 안료는 먹, 적색 안료는 연단과 산화철계 안료, 녹색 안료는 녹염동광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상형도기의 엑스선 투과 촬영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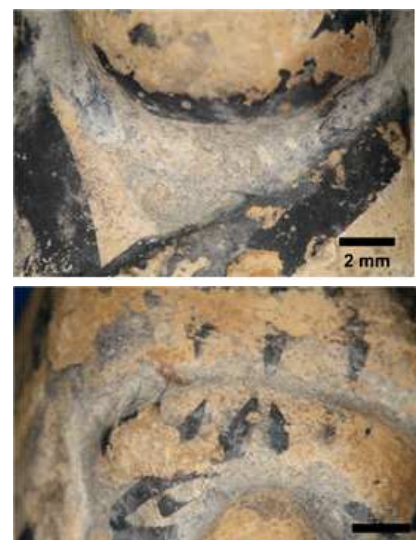


그림 2. 잔존 채색 안료